

국민의 마음건강에 앞장서는 전문가 그룹



한국임상심리학회

www.kcp.or.kr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홍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교류를 위하여 「202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유익하고 다채로운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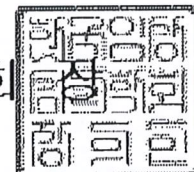
- 아 래 -

- 행사일정 : 2021년 10월 21일(목) ~ 22일(금) / 2일간
- 진행방식 : 온라인 (ZOOM)
- 요청사항 : 홈페이지 내 관련 내용 게시 및 홍보
- 문 의 : 한국임상심리학회 사무국 (1877-6308)

첨부1. 202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브로셔. 끝.

<수신자> 전국대학교 및 대학원 심리학전공학과장

한국임상심리학회



팀장 강미선

홍보 및 정보이사 서수연

문서번호 임상심리 57-201 (2021.09.30.)

주 소 (우) 1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늄 901호 / <http://www.kcp.or.kr>

전 화 1877-6308

전 송 02-6944-8394

/ kcpa@kcp.or.kr

/ 비공개

한국임상심리학회

www.kcp.or.kr

우리와
세상을
잇는
임상심리학

2021 Autumn conference

CONNECTION

2021
가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 21 목

10. 22 금

온라인 (Zoom)

주최 한국임상심리학회

후원 마음사랑

(사)한국심리학회

(주)학지사

초대의 말씀

연결(Connection): 우리와 세상을 잇는 임상심리학 2021년 가을 온라인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무엇보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회를 꾸준히 성원해주시고 학회의 크고 작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회원들께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들에서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시대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connection)'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고려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이번 가을학술대회 주제를 '연결(Connection): 우리와 세상을 잇는 임상심리학'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가을학술대회의 기획 의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께 가을학술대회의 참여 경험을 통해 한국임상심리학회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더불어 깊이 있는 지식의 향연이 주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가을학술대회 프로그램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임상심리학회의 학술적인 위상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학술대회 모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1년 가을 학술대회는 10월 21일(목)부터 10월 22일(금)까지 양일간 개최됩니다. 하지만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녹화된 강연 영상 또는 대담 영상을 학술대회에 참여 신청한 분들께서 22일(금) 저녁부터 23일(토) 사이에 등록조건에 맞추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학술위원회에서는 이번 가을학술대회를 위해 네 분의 세계적인 거장을 초청했습니다. 과정기반 인지행동치료의 거장 스티븐 헤이즈(Steven C. Hayes), 자아존중감의 소시오미터(sociometer) 이론을 창안한 마크 리어리(Mark R. Leary), 하버드 대학의 성인발달연구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George E. Vaillant), 실존 심리치료와 집단 심리치료의 거장 어빈 알롬(Irvin D. Yalom). 그 밖에도 이번 가을학술대회에서는 '나와 마음의 연결', '나와 남의 연결', '임상심리학과 사회의 연결', '삶과 죽음의 연결' 등을 키워드로 활용한 다채로운 학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이처럼 다양한 학술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학자들과 해외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학술위원회 위원들은 온 정성을 다해 이번 가을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이번 가을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회원들 간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2021년 가을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회장 고 영 건
학술부회장 김 근 향
학술위원장 이 종 선 드림